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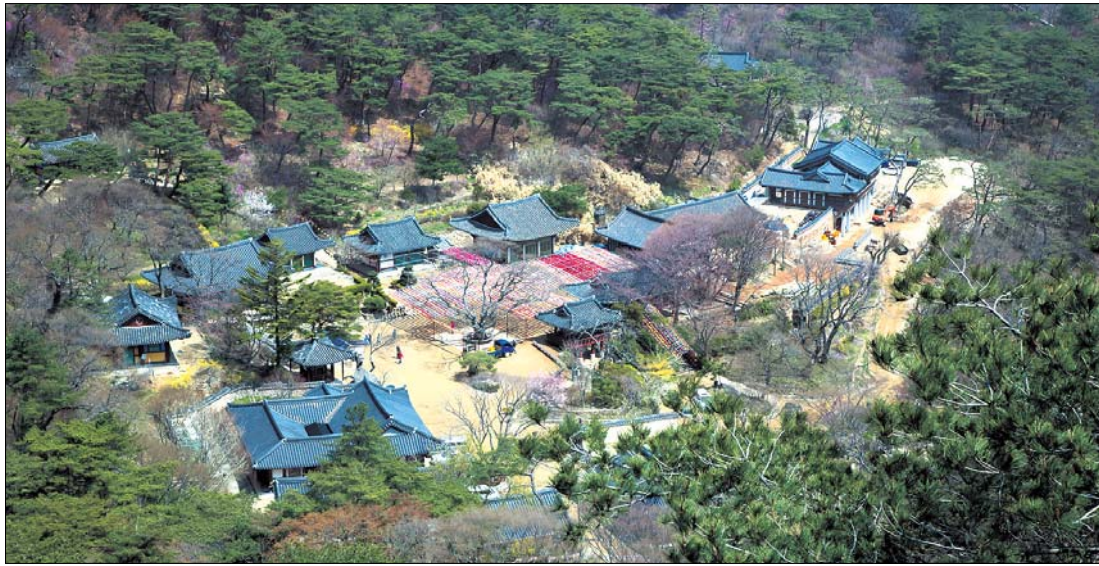
여행자의 시선으로 본 고찰 24곳

경산제찰을 찾아서
신대현 지음
해안 펌
1만6천원

“어느새 두어 시간이 훌쩍 흘러갔다. 몇 번이나 같은 곳에 와도 그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곳이 절이다. 그게 절의 매력이라고 말하고 싶다.”

한국인에게 절이란 참으로 독특한 공간이다. 오로지 한 종교의 건축물이나 불교의 의식과 신앙 활동이 이루어지는 종교적 공간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곳이다. 책은 《전통사찰총서》를 비롯해 《한국의 사찰현판》, 《한국의 사리장엄》 등 전통사찰과 전통문화에 관련된 논문과 저서들을 집필한 신대현이 서울 경기 일대의 천년 고찰 24곳을 순례하고 사찰을 소재로 한 시들을 통해 사찰의 유래로부터 역사적 사실, 가람 배치, 각 건물들의 의미 등 사찰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여행자의 시선으로 읊은 여행기이다.

책에서 다른 사찰은 널리 알려진 북한산 도선사나 진관사, 강화 보문사나 전등사, 양평 용문사 등의 큰 사찰뿐만 아니라, 정릉의 흥천사나 은평 구국사, 시흥 호암사, 인천 용궁사, 안성 석남사 등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찰들도 포함되어 새로움을 더해 준다.



강화 전등사 전경

종로의 청통사에는 조선조 최대 비극의 커풀인 단종과 정순왕후의 애달픈 이별 스토리가 담겨 있고, 성북 개운사는 대한민국 건국 후 최초로 참가한 런던올림픽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들어 있다. 또 국내 유일의 비구니 종단인 보문종의 본산인 성북 보문사,故 지관 스님과 인연 깊은 정릉 경국사, 조선태조 이성계의 지극한 아내 사람이 서려있는 정릉 흥천사, 조선조 한양을 수호했던 ‘호랑이절’인 시흥 호암사, 19세기 병인양요 등 외세의 침략과 지금의 분단현실이 그대로 겹쳐 보여지는 김포 문수사 등도 이 책을 통해 새롭게 발견되는 사찰들이다.

이밖에, 조선 세조의 원찰이면서 춘원 이광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남양주 봉선사, 신라 원효대사와

아내 요석공주, 아들 설총의 전설이 어린 동두천 자재암, 빼어난 대웅전 외벽벽화를 감상할 수 있는 파주 보광사, 호랑의 치욕을 이겨내기 위해 수많은 스님을 동원해 쌓은 남한산성의 역사를 증언하는 경정사와 망월사 등도 현재 살아 숨쉬는 불교문화로서 재조명하고 있다.

그런데 왜 30년 동안 전국의 절을 찾다니 전문가가 아닌 여행자의 시선일까? 저자는 앞으로 절을 찾을 때 더 이상 어려운 용어 대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느끼고 그 맑은 모습을 가슴에 담고 나오면 된다는 당부의 말을 전하고 싶어사라고 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카메라 렌즈를 벗당 이곳저곳 자체

히 들이대지 않았고, 줄자로 입구에 선 부도나 비석의 크기를 재지도 않았으며, 절 주변에 특별한 무엇이 있는지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다니지 않았다. 이 책에서만큼은 그저 동행에게 말을 건네는 여행자로, 그 어떤 이보다 쉽고 편안하게 사찰이 품은 옛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책에는 사찰에 관련된 여러 한시와 현대시를 소개하고 있다. 물론 한시의 해석은 저자에 의한 번역이다. 그래서 사찰을 다니고, 그와 관련된 한시를 해석하는 건 그곳을 찾았어 글을 쓰는 이의 필수적 소양이자 감수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표의문자인 한자로 쓰인 한시는 한 자 한 자에 다양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 읽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해될 수 있고, 여기에 다시 서정적인 감수성을 담다보니 어떤 경우에는 제목과 내용이 잘 연결되어지지 않는 번역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이런 일은 사찰과 관련된 한시에 많이 보이는데 이는 그 사찰의 역사를 잘 모르고서는 시어에 담긴 의미를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명찰을 노래한 옛 시에 현대시까지 더함으로써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알 수 없는, 절에 대한 감상까지 그대로 담아냈다. 시라는 매개체를 통해 현재의 나와 이곳에 수백 년 전에 왔던 옛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것이다. 책이 다른 각각의 사찰과 또 그를 노래한 시들에는 우리 불교사의 의미 있는 순간들이 새겨져 있고, 이것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지금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무심히 지나쳐버린 우리 불교사를 되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마음’ 설명하는 ‘아뢰야식’의 발견

마음의 비밀-아뢰야식의 발견

요코야마 코이치 지음 | 김영우 옮김 | 민족사 펌
1만8백원



“인류의 대발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로(0)’의 발견일 것입니다. 인도인이 제로를 발견함으로써 인류의 모든 문화가 커다란 진보를 이루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 제로에 필적하는 대발견이 ‘아뢰야식’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아뢰야식도 인도인이 발견한 것으로, 마음의 제로 지점을 가리킵니다.”

현대의 뇌과학조차도 규명할 수 없는 깊은 차원의 마음이 있다. 불교의 유식(唯識)에서는 이를 아뢰야식이라고 한다. 마음의 표층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사고는 모두 아뢰야식에 축적되어 무의식중에 표정, 몸의 상태로 나타나 외부에까지 영향을 준다. 또한 일상 속 무의식의 행복과 불행의 정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마음의 상태가 뇌의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책은 마음이 변하면 뇌가 변한다는 역설적인 믿음을 통해 마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명하여 마음을 변형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맥락에서 그림과 도표를 이용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했다.

불교의 유식학파에서 실한 ‘아뢰야식’은 마음을 표층에서 심층까지 여덟 가지로 나눌 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근본심’을 아뢰야식이라고 한다. 이것은 마음의 작용이나 감정, 표정, 삶의 방식 등 모든 인생의 의지처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아뢰야식의 발견을 무엇 때문에 대발견이라고 하는 것일까.

첫째는 불교 이외에 마음의 심층에 있는 아뢰야식의 존재를 알아차린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뇌과학의 발달에 의해 뇌의 구조와 작용이 해명되었지만 마음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정신분석학에서 ‘무의식’을 설명했지만 무의식과 아뢰야식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불교는 아뢰야식을 발견함으로써 마음과 바르게 접촉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누구나 살아가는 것은 괴롭다. 그런데 ‘마음’과 바르게 사귀면 분노, 마음, 절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리며 살아가는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유식은 마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명하여 마음을 대변형시키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사는 것이 괴로운 시대이자 희망을 품기 어려운 시대인 오늘날에 아뢰야식을 정확하게 아는 지 모르는데 따라 얼마만큼 한 사람의 인생이 생기고 빛나는 것으로 변하는가를, 이 책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책은 몸과 마음을 주관하는 아뢰야식을 알아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표정과 심층이 연결되는 비밀코드를 알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원인불명의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책이다. 박재원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맑은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웅화
3	직지 길을 가르키다	이시우	민족사
4	깨달음	법륜	정도출판
5	육조단경 (고우 스님 강설)	고우	조계종출판사
6	심중한 생활의 권유	마스노 슌모	대난출판사
7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	쌤앤파크스
8	사찰음식이 좋다	일문	담앤북스
9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쌤앤파크스
10	대승기신론 강해	한지경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일체중생이 一心의 존재...중생이 부처

대승기신론 강해

한지경 지음 | 불광출판사 펌 | 2만2천원



1~2세기 경, 인도의 마명(100~?)이 저술했다고 전해지는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은 이론과 실천의 양면에서 대승불교의 중심 사상을 종합한 대승불교 최고의 논서로 평가 받고 있다. 책은 진제의 한역본을 저본으로 원효와 법장의 소를 비교 분석하며 일심(一心) 이문(二門)의 대의를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240여개의 내용 설명 도표를 사용하여 상세하고 논리정연하게 해설하고 있다.

《대승기신론》은 현상세계 우주만물인 법에 대해 그 일체를 있게 하는 궁극존재를 ‘법의 바탕 내지 기반’이란 의미에서 ‘법체(法體)’라고 부르고, 그 법체를 ‘참으로 그러함’이라는 의미에서 ‘진여’ 또는 ‘진여법신’이라고 부른다. 기신론은 이 현상세계 우주만물 일체 경계가 모두 다 진여의 발현이고 표현이

라는 것을 논하는 논서이다. 한마디로 진여 자체와 진여의 드러난 현상적 모습과 진여의 작용을 밝히고 있다. 궁극적으로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며 나아가 실천적 행을 닦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산스크리트어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고, 한역은 진제가 번역한 1권본과 실차나타가 번역한 2권본이 있으며 이 중에서 진제의 한역본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 대승기신론은 대승불교의 모든 사상을 종합적으로 회통하며 체계적인 논리를 세워 대승의 본질을 밝히고 있다. 중관사상과 유식사상의 일부가 조화를 이루고 있고 여래장사상까지 원숙하게 표출되어 있다. 또한 치밀한 구성과 정확하고 간결한 문체, 독창적인 사상체계가 대승(大乘)의 대의를 종합적으로 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그 영향도 대단해서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주요 종파, 즉 화엄, 천태, 선, 정토, 진언 등에 골고루 미치고 있다. 대승기신론이 사상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주석서도 많이 저술되어 근대이전까지 약 190여 종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수나라 해위의 《대승기신론소》, 신라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당나라 현수법장의 《대승기신론의기》를 3대 소라고 한다. 우리가 모두 함께 어우러져 사는 이 현상 세계 일

체 경계가 모두 하나의 마음, 즉 일심의 표현이라는 것은 곧 우리 각자의 중생심이 표층에서는 각각 별개의 존재처럼 보여도 심층에서는 결국 하나라는 것, 우리 각자의 마음 바탕이 각각의 체(體)가 아니라 하나의 체라는 것, 하나의 일심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심의 법, 즉 중생심(衆生心)이 곧 진여심(眞如心)이고, 중생이 곧 부처이며, 일체 중생이 모두 일심의 존재임을 믿는 것이 바로 대승기신론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대승적 믿음이다.

대승기신론은 이와 같이 동학적인 일심 이문의 사상체계가 대승의 불이법문(不二法門)을 완성하고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보살사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저자 한지경 교수는 논증하며, 대승기신론의 참 정신을 오늘에 되살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대승기신론》은 진여의 체상용을 밝히는 책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책의 제목이 말해주고 있다. ‘대승기신론’은 ‘대승적 믿음 또는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를 뜻한다. 대승에 대한 믿음은 곧 ‘진여에 대한 믿음’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기신론은 독자로 하여금 진여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다. 박재원 기자

처음 만나는 불교 시리즈

불교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위한, 불교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불교 입문서이자 교양서!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지?

청년붓다,
대자유의 길을 찾아 떠나다
박이오 저/국판변형 168쪽/9,000원

스님은 뭐하시는 분일까요?

스님,
한 마음 밝혀 온 세상 비추네
224쪽/10,000원

절은 어떤 곳이지?

절,
몸과 마음을 내려놓다
206쪽/10,000원

템플스테이, 이것만 알고 가자!
사찰 예절, 건축물, 조형물, 벽화, 도구, 불교의 상징물, 예불, 사찰 생활, 수행법, 예불문과 경전 해설, 애송되는 불교 명문 등으로 구성. 불자들은 불교를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하고, 일반인들은 불교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불교의 정신세계를 맛볼 수 있게 하는 책!

템플스테이 길라잡이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위한 안내서이자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을 위한 불교입문서!
남궁선 역음/신국판 컬러/303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